

식민주의적 역사서술의 재역사화*

—디옴의 아프리카 역사서술과 사관을 중심으로—

정 현 백**

- I. 머리말
- II. 디옴의 삶과 활동
- III. 디옴의 아프리카역사학 재구성
- IV. ‘흑아프리카’적 문화공동성
- V. 정치구상
- VI. 끝맺는 말

• 국문초록

디옴(Cheikh Anta Diop)은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유럽중심주의적으로 쓰인 기존의 아프리카 역사서술에 대한 비판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아프리카 역사서술과 역사관 정립을 시도하였던 역사가이다. 파리의 유학생생활 이후 귀국한지 20년 후에야 다카(Dakar) 대학의 교수직을 얻을 정도로 디옴은 역사학계의 이단아였지만, 그의 사후 세네갈의 국립대학인 다카대학이 디옴대학으로 명명될 정도로 아프리카 내에서 그의 영향력은 지대하다. 이 논문은 ‘아프리카역사 새로 쓰기’를 시도하였던 디옴의 역사서술

* 이 논문은 2013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3S1A5B8A01055234).

**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

과 사상을 분석하였다.

첫째로 디옴은 이집트문명은 사하라 이남의 ‘흑아프리카’에서 유래하였고, 이 최초의 흑인문명이 최초의 세계문명이라고 주장하였다. 이후 이집트의 사상과 과학기술이 유럽문화, 특히 고대 그리스문화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았다. 둘째로, 디옴은 거대 권력이 부재하였던 아프리카에서는 쪼개진 다양한 종족문화가 존재하였을 뿐이라는 서구적인 역사서술에 맞서 흑아프리카의 문화공동성(cultural unity)을 주장하고 그 내용을 발굴하고 재구성하려 하였다. 셋째로 디옴은 정치활동에도 참여하면서, 구체적으로 범아프리카주의에 토대를 둔 아프리카연방의 건설을 주장하였다. 제국주의적인 위협에 맞서면서 아프리카가 온전한 산업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적인 이해관계나 정치적 틀을 넘어서서 단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디옴의 주장에 대한 비판도 없지 않다. 디옴의 역사서술과 역사관도 또 다른 ‘아프리카중심주의’라는 비판에서부터 디옴의 주장이 문화의 혼종성을 도외시하거나 그의 글 곳곳에서 입증되지 않은 논리적 비약이 드러난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한다. 이런 비판에도 불구하고 디옴의 새로운 시도가 ‘역사 다시 쓰기’나 아프리카의 새로운 역사정체성 구성을 위한 획기적인 전환점을 제공하였음을 부인할 수 없다.

• 주제어

식민주의적 역사서술, 네그리튀드, 흑아프리카적 문화공동성, 흑인문명, 유럽중심주의

I. 머리말

아프리카는 오랫동안 ‘역사가 없는 대륙(Geschichtslose Kontinent)’로 알려져 왔다. 인류 발전과정에서 아프리카, 아마 전체 아프리카 대륙은 다른 지역에 비해 뒤쳐진, 문화적으로도 열등한 곳이었다. 바로 이런 일반적인 통념에는 몇 가지 편견이 들어 있다. 첫째는 아프리카에는 문자나 문자문화가 부재하다는 편견이다. 보통 인류는 그 역사적 발전과정에서 먼저 문자를 발명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성취와 사상을 문자로 정리하였는데, 아프리카는 여기에서 예외적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편견은 아프리카는 자기증언(Eigenzeugnisse)을 결여하였다는 것이다. 즉 우리가 취급할 수 있는 아프리카의 문자적인 전승물은 대부분 외래인, 아랍인이나 유럽인 여행가들 혹은 나중에 들어온 유럽의 식민지 관리자 선교사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고고학적인 유물은 부족하거나 단지 적은 지역에서 발굴되었기에, 자기증언의 부족을 보완할 수 없었다. 아랍인이나 유럽인의 펜으로 쓰인 아프리카에 관한 문자적인 진술의 특성은 비정상적인 인물이나 당혹스럽고 야만적인 풍습과 관행에 대한 보고를 통해 전체적으로 하나의 부정적인 상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세 번째의 부담은 아프리카 역사서술에 지워졌다. 아프리카는 오랫동안 셀 수 없을 정도로 끝없이 다양한 사회·나 지배형태로 나뉘어 있었고, 여기에서는 보다 강한 자의 자의성과 권력행사가 남용되었다. 더불어 아프리카는 오랫동안 보다 큰 규모의 국가를 만들거나 유지할 능력이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 전체적으로 이 대륙은 무수히 많은 언어, 습속, 그리고 관습을 지닌 완전히 쪼개진 대륙이었다. 어떤 형태의 통일성, 즉 정치적이거나 문화적인 의미에서의 지역적 통합을 결여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종교조차도 단일하지 않았고, 이곳에서 주민은 자연, 조상 그리고 초자연적인 존재에 크게 의존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소단위로의 분할이라는 기본특징은 지구상의 다른 문화중심과 아프리카대륙을 근본적으로 구별하는 것으로 보았다.¹⁾ 식민

지 행정부는 물론이려니와 아프리카인들 스스로도 아프리카의 역사의식 부재를 하나의 약점으로 수용하였다.²⁾

위에서 언급한 아프리카 권력 분산성의 원인과 결과는 능력을 가진 지도자가 아니라 연장자에 의해 통치되는, 그래서 조상숭배와 신비한 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대적으로 경직되고 정체된 사회형태에서 찾을 수 있다고 보았다. 이런 아프리카에서는 결코 기술발전의 자체 동력을 찾을 수 없었고, 결과적으로 스스로 근대적, 기술적 발전에 어떤 기여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기독교 선교사나 유럽 식민지배자들을 통해서 아프리카는 비로소 과거의 정체되고, 경직된 그리고 자의적인 권력이 행사되는 억압된 과거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다. 식민지권력은 이들에게 문명과 진정한 신의 종교, 기독교를 가져다주었다는 것이다. 이런 역사상은 학문적인 세계에서는 오랜 동안 전승된 공동의 유산이었다. 얼마 전까지도 아프리카 역사는 비아프리카인, 특히 식민지권력에 속한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거나, 서술되었다. 당연히 이는 유럽적인 잣대나 경험세계를 토대로 만들어졌다.

포스트식민시대 초기에는 독립운동 시대의 이념이 승계되면서, 민족형성에서 국가의 중심적 역할이나 중앙집중화된 개발프로젝트의 일관된 실행, 즉 일종의 서구 따라잡기에 지식인들의 관심이 모아졌다. 이런 사회분위기 속에서 역사가들의 관심도 역사학 연구의 방법론 비판보다는 아프리카 역사의 콘텐츠를 만들어가는 작업에 치우쳤다. 역사서술의 전범이 유럽사의 맥락 속에서 출원하였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는 1980년대 중반에 이르러서야 나타났고, 세네갈을 중심으로 활동한 다카르 학파(Dakar School)의 역사서술이 제시하는 비판적인 분석에서 시작되었다. 이는 사

1) Leohard Harding, Brigitte Reinwald, eds., *Afrika-Mutter und Modell der europäischen Zivilisation? Die Rehabilitierung des schwarzen Kontinents durch Cheikh Anta Diop*, Berlin: Reimer, 1990, pp.7~9.

2) A. Jones, "Kolonialherrschaft und Geschichtsbewusstsein", *Historische Zeitschrift*, Bd. 250, 1990, p.78.

회과학 내에서 지배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재평가가 한편으로 일어나고, 다른 한편으로는 1970년대 이래 아프리카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보다 복잡한 변화들과 맞물린 현상이었다.

다카르 학파와 관련하여 우리는 세 명의 인물을 언급할 수 있다. 네그리튀드(검음, *négritude*) 운동의 창시자이자 대통령을 지낸 쟁고르(Léopold Sédar Senghor), 디옴(Cheikh Anta Diop) 그리고 라이(Abdoulaye Ly)를 들 수 있다. 이 세 사람은 아프리카 역사연구의 쟁점인 대서양 노예무역이나 식민지 정복에 대한 입장이 각기 달랐지만, 새로운 역사서술과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을 지니고 있었다. 다카르학파가 던진 공통의 질문은 ‘유럽의 역사학적 궤적 속에서 서술해온 학문적 규준체계를 사용하면서 세네갈과 아프리카의 역사를 서술할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우리 시대의 학문권위에 의해 받아들여질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신력을 지닌 아프리카 국민국가 역사나 아프리카대륙 역사를 서술하는 것이 가능한가’ 이었다.³⁾

위에서 언급한 세 인물 중에서 서방세계 뿐 아니라, 불문학자들에 의해 한국에도 많이 소개된 것은 쟁고르이다.⁴⁾ 1930-1950년대 서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된 네그리튀드운동의 창안자인 쟁고르는 이를 통해서 잃어버린 아프리카의 문화유산과 그 정체성을 찾고자 하였다. 프랑스 국민의회

3) Ibrahima Thioub, “Writing National and Transnational History in Africa: The Example of the ‘Dakar School’”, Stefan Berfer, ed., *Writing the Nation: A Global Perspective*, London: Palgrave, 2007, p.198.

4) 마찬가지로 네그리튀드운동의 창시자로 에메 세제르(Aimé Césaire)를 들 수 있다. 서인도제도에 위치한 프랑스의 해외 도서인 마르티니크(Martinique) 출신인 세제르는 저작활동을 통해서 식민주의가 표상하는 문명과 사명의 허구를 폭로하고, 오히려 식민주의가 식민주의자들을 비문명화시킨 현실을 적나라하게 비판하였다. 그러나 그 역시도 쟁고르와 마찬가지로 백인 노예소유주의 자의적인 전횡에 시달리는 식민지 주민들에게는 자유는 본국에 좀 더 통합되고 이를 통해서 “식민지자들의 자의적, 사적 지배를 본국의 법적, 공적인 지배”로 바꾸는 것이라 보았다. 이런 점에서 그에게서는 디옴과는 다른 입장의 차이를 발견한다. 권윤경, 「탈식민화시대에서 전지구화 시대로-에메 세제르의 『식민주의에 대한 담론』과 포스트식민주의조건들」, 『서양사론』 제127호, 2015, 200~203쪽.

의 부의장으로 선출되었고, 그는 나중에는 세네갈대통령으로 20년간 봉직하면서, 때로는 독재적 통치방식으로 비난받기도 하였다. 이 글에서 다루려는 디옴은 정치적으로도 생고르와는 판이하게 다른 경로를 걷게 된다. 디옴이 급진적인 학생운동의 중요한 대변자로서 저항자의 ‘광휘’를 누렸다면, 생고르는 스스로가 장악한 권력의 부담에서 자유롭지 못하였다. 생고르는 1960년대에 디옴을 형무소에 수감하였고, 1970년대에는 디옴이 창립한 아프리카민주연맹(RND)의 활동을 억압하였다는 점에서 이들은 정치적인 적대자가 되어 있었다.⁵⁾ 그러나 사상적인 측면에서는 생고르나 디옴은, 크게 보아서, 네그리튀드 운동의 범주에서 함께 활동한 지식인이고, 그들 간의 차이는 대립적인 것이기 보다는 정도의 차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⁶⁾

프랑스혁명기간 동안 세네갈이 삼부회에 보낸 진정서 그리고 프랑스 서아프리카 제국 건설자와 프랑스 식민지 지배에 대한 아프리카인의 저항을 칭송하는 생고르의 언급은 그의 역사담론의 이정표이었다.⁷⁾ 여기에서 생고르와 디옴은 동일한 출발점에 서 있었다. 그러나 이런 생고르의 사상은 그의 프랑스 의회에서의 직접적인 활동이나 유라프리카 공동체 건설을 주창하는 것을 통해서 디옴과는 다른 정치적 경로를 걷게 되었다. 유라프리카 공동체의 설립 속에서 아프리카의 미래 비전을 찾으려는 생고르의 노력은 디옴이 보기에 바로 신식민주의 경로에 진입하는 행위로 비쳤다.⁸⁾

생고르와 디옴의 또 다른 차이는 전자가 문학을 통해서 아프리카 정체

5) Chris Gray, *Conception of History in The Works of Cheikh Anta Diop and Theophile Obenga*, London: Karnak House, 1989, pp.36~41.

6) Ibid., p.45.

7) Ibrahima Thouib, op. cit., pp.198~199.

8) 이복남, 「유럽통합 초기단계에 나타난 L.S. 생고르의 유라프리카공동체 구상」, 『EU연구』 31권, 2012, 189~210쪽. 이런 맥락에서 프란츠 파농은 생고르의 네그리튀드를 제국주의의 이데올로기적 도구가 되었다고 비판하였다. Chris Gray, op. cit., p.38.

성을 찾으려 하였다면, 후자는 사회과학, 보다 정확히는 역사학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한 점에서도 찾을 수 있다.⁹⁾ 이런 점에서 디옴은 아프리카인에게 내면화된 유럽중심주의적 역사관에 맞서, 역사전쟁을 가장 격렬하게 감행한 최초의 인물이었다. 다카르학과 3인방의 하나는 라이 역시도 자신의 과제를 역사학연구에 두었지만, 그는 디옴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을 시도하였다. 즉 그는 다카르 학파 고유의 역사연구 영역을 개척하려 하였고, 이를 통해서 아프리카 역사연구가 전문역사학으로서의 공신력을 획득하기를 원하였다.¹⁰⁾ 이에 비해 디옴은 아프리카적인 역사인식을 재생하려는 비전과 함께 역사철학을 생산해내는 과업에 더 열중하였다고 할 수 있고, 더불어 세계사 속에서 아프리카를 자리매김하기 위한 격렬한 투쟁을 시작하였다.

디옴의 관심은 생고르의 네그리튀드에 대한 찬미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아프리카 역사서술을 통해 아프리카 정신세계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만드는 것이었다.¹¹⁾ 뿐 만 아니라 디옴은 역사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민족국가적인 아프리카 정치의 이론적인 기초를 쌓고, 나아가 근대적인 아프리카 학문전통을 만드는 데에 획기적인 역할을 하였다. 또한 디옴의 아프리카역사의 재역사화나 새로운 이론의 수립은 필연적으로

9) Ibid., p.40.

10) 라이는 아프리카의 종속적 기원을 캐고자 하였고, 이를 위해 대서양을 통한 세 대륙의 자본주의적 관계를 구명하고자 하였다. 예를 들면 17세기 대서양무역에서 프랑스 회사의 역할이나 자본축적 과정에서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식민지 무역의 역할을 밝히는 작업이 그것이다. 혹은 그는 국민국가의 형성과정에서 정치적 좌절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아프리카 현재상황의 역사적 근원을 캐고자 하였고, 이 과정에서 종속이론의 도움을 받아 대서양을 관통하는 노예무역을 분석하면서 아프리카 사회가 글로벌 자본주의 경제로 통합되는 과정을 구명하려 하였다. Ibrahim Thoub, op. cit., pp.202~203.

11) 생고르의 네그리튀드 사상은 이미 불문학자나 정치학자들에 의해서 국내에 소개되어졌다. 생고르의 사상에 관해서는 김준환, 「네그리튀드와 민족주의: 생고르와 쟈제르」, 『비평과 이론』 9권 2호, 2004; 이복남, 「L. S. 생고르의 네그리튀드와 보편문명 개념-마르크스와 테야르 드 샤르댕을 중심으로」, 『비교문학』 55권, 2011, 213~230쪽을 참조.

정치적 실천운동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포스트식민주의 아프리카 사회에서 유럽의 문화적 영향력을 탈피하려는 시도나 유럽 언어에서 벗어나 아프리카의 자기언어를 찾으려는 노력,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를 위해서 아프리카의 통합을 이루어 통합된 연방국가 건립의 구상이 바로 그것이다.

이 글의 2장에서는 디옴이라는 한 매력적인 역사가이자 정치가가 살아온 과정과 활동을 먼저 소개하고자 한다. 3장에서는 디옴의 역사연구를 통한 아프리카 역사의 재역사화과정을 다루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흑인들에게도 잃어버린 역사를 되찾는 과정의 일환으로 이집트문명과 “흑아프리카(Schwarzafrika)”¹²⁾의 연관성을 구명하려는 디옴의 연구를 다룰 것이다. 이어 이런 아프리카문명의 기원으로서의 이집트문명이 유럽에 끼친 영향을 밝힐 것이다. ‘쫓개진 아프리카문화’에 대한 반론으로 단일한 아프리카문화권의 존재에 관한 디옴의 주장을 분석하고, 디옴이 자신의 역사연구를 현실정치로 실현해가는 노력과 아프리카 연방국가 구상에 대해 소개할 것이다.

디옴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에는 많은 난관이 있었다. 디옴은 파리와 세네갈에서 활동하였고, 그의 저서가 1955년에 파리에서 출간된 후, 1960년에 영어권에서 처음 번역되었다. 필자는 영어본으로 된 그의 저서 몇 권을 구할 수 있었지만, 디옴을 분석한 이차문헌은 독일어판 단행본 1권과 논문 1편이 고작이었다.¹³⁾ 아프리카사 관련 저널에서 그에 대한 연구

12) “흑아프리카”는 사하라 이남지역의 아프리카를 일컫는다. 이 지역은 다른 지역과는 다른 기후권이고, 문화나 지리학적으로도 다른 지역과 분리되어 있었다. 유럽인들이 칭하는 검은 대륙이라는 명칭은 한편으로는 주민의 피부색에서도 기인하지만, 달리는 유럽인들에게 내륙사정이 19세기 후반기까지 미지의 세계였다는 점에서도 기인하였다. 그렇더라도 식민지시대 동안 고착된 ‘흑아프리카’라는 용어는 당시의 유럽인의 시각을 드러내는 것이고, 여기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는 문화가 없다는 의미로 읽힌다는 점에서 인종주의적 용어이다. 요즈음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지만, 이 글에서는 당대의 관용어라는 의미에서 할파움표와 더불어 이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https://de.wikipedia.org/wiki/Subsahara-Afrika> 참조.

논문은 발견할 수 없었다. 디옴의 이름을 따서, 세네갈을 대표하는 다카르 대학의 명칭이 ‘체이크 안타 디옴 대학’으로 개명되었을 정도로 그는 아프리카인에 의한 아프리카 역사쓰기의 모델이라 할 수 있지만, 유럽중심주의적 역사학계는 그에 대해 여전히 냉담하다. 아프리카사에 대한 연구의 양적 빈약을 전제하더라도 디옴에 대한 서구의 관심은 인식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이 글은 위에서 언급한 자료적인 한계와 연구의 절대적 부족이라는 조건 속에서 쓰인 시론이라 할 수 있다.

II. 디옴의 삶과 활동

1923년 서부 세네갈의 듀벨(Diourbel)에서 모슬렘 농부의 아들로 태어난 디옴은 1946년에 파리의 소르본느대학에서 공부를 시작하였다. 그가 받은 교육은 대단히 학제적이었는데, 그는 파리고등학교수원이나 프랑스대학에서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과학에 대한 광범한 지식의 기초를 얻었다. 특히 그의 자연과학 지식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은 줄리오-퀴리(Frederik Joliot-Curie)의 핵연구소¹⁴⁾에서 진행한 물리학과 수학연구이었다. 동시에 디옴은 사회인류학, 고고학, 이집트학, 언어학 등을 학습하였다. 디옴은 다양한 영역에서 얻은 지식을 자신의 거시적인 명제를 입증하는데에 활용하려 하였다. 디옴은 그리스와 로마 역사가들의 사료작업 외에도 멜라닌색소 연구, 라디오 카본 측정기, 금속학 분석을 시도하였다. 또

13) 이 논문은 글로벌사와 민족적 정체성에 대해 최근의 문제의식에서 출간된 단행본에 게재되었다. Ibrahima Thioub, op. cit. 참조. 또한 본 논문의 필자는 프랑스어로 출간된 단행본과 연구논문을 일별하였으며, 자세히 섭렵하지 못하였음을 고백한다. 주로 영어권, 독일어권 문헌들을 많이 참고하였다.

14) 줄리오-퀴리는 마리 퀴리의 사위이자 노벨상 수상자 그리고 나중에는 공산당계 열 레지스탕스 대원이었다. 이런 정치적 성향으로부터도 디옴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한 그는 이런 자연과학적 지식의 토대 위에서 고대 이집트 언어와 현대 아프리카 언어를 비교하면서, 유럽중심주의적 학문개념에 대한 공격을 시도하였다.¹⁵⁾ 식민지출신의 지식인으로서 그가 이렇게 폭넓은 학제적 연구를 수행한 것은 놀라운 일이다.

다음은 1954년 소르본느에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였으나, 이는 근거 자료의 불충분을 이유로 그곳의 학자들에 의해 거부되었다. 다음의 논지가 수용될 리 없었다. 1959년에 다음은 ‘흑아프리카의 문화공동성(Unité culturelle)’이라는 제목으로 다시 박사학위 논문을 제출하였다. 유럽과 아프리카의 문화적 다양성의 기원을 다룬 이 논문은 아프리카인종과 그들이 지닌 문화공동성을 밝히면서, 아프리카와 유럽문화의 연계성을 구명하려는 연구이었다. 이는 명백히 문화의 유럽중심주의에 반기를 드는 것인데, 이는 소르본느 학자들에 의해 다시 거부되었다. 1960년에 와서야 ‘식민지 이전시대의 ‘흑아프리카’(L’Afrique Noire Precoloniale)’라는 제목으로 박사학위 논문이 소르본느 대학에서 통과되었다.

1961년 세네갈의 수도 다카르(Dakar)로 돌아와서, 다음은 다카르대학 문학부의 교수직에 지원하였으나, 프랑스에서와 마찬가지로 고국의 역사학계에서도 그는 홀대를 받았다. 이는 선교사학교에서 교육 받은 서구 중심적 세계관을 지닌 역사가들이 근대역사학의 도입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기 때문일 것인데, 식민지 지배의 유산을 그대로 내면화하면서 스스로의 과거를 현재의 권력관계에 동화시켜버린 전형적인 사례이다.¹⁶⁾ 또 달리는 세네갈은 독립하였지만, 프랑스의 문화적 신식민주의는 여전히 학문세계에서 맹위를 떨치고 있었기 까닭에서도 기인하였을 것이다. 다음의 역사인식이 대학에서 통용되는 데에 20여 년이 걸린 이유는 앞에서 언급한 프랑스 역사학의 헤게모니 외에도, 1960년에서 1980년까지 집권한 생고르 대통령에 대한 다음의 정치적 비판도 또 다른 원인으로

15) Leohard Harding, Brigitte Reinwald, op. cit., p.23.

16) A. Jones, op. cit., p.75; Chris Gray, op. cit., pp.2~3.

작용하였다.

범아프리카주의 주장과 함께 디옴은 1961년 정치무대로 나왔다. 1961년에는 세네갈대중블록(Bloc des Masses Sénégalaises)을 창립하고, 1964년에는 세네갈민족전선(Front National Sénégalais)을 다시 설립하였다. 다시 1976년에는 마르크스주의-레닌주의를 표방하는 민족민주연합(Rassemblement National Démocratique, RND)를 조직하였지만, 이는 소수당에 머물고 말았다. 생고르대통령의 권위주의적 통치방식에 대한 비판이나 네그리튀드라는 외투아래 문화영역에 안주하면서, 경제영역에서 드러나는 프랑스 제국주의를 묵과하는 것에 대한 디옴의 문제제기는 그의 정치적인 성공을 어렵게 하였던 것 같다. 결국 1981년 총선에서 RND는 고작 2.7%의 지지율을 얻는 것에 그쳤다.¹⁷⁾

정치 참여이외에도 디옴은 꾸준히 학문연구를 계속하였다. 디옴은 1963년에서 1966년까지 ‘흑아프리카’기초연구소(Institut Fondamental d’Afrique Noire, IFAN)를 다카르에 창립하였는데, 이는 라디오 카본 측정과 저에너지핵연구(Niedrigenergie-Kernforschung)를 위한 연구기관이었고, 그의 생애 말까지 이곳의 연구소장 임무를 담당하였다. 또한 디옴은 유네스코 산하의 <아프리카통사를 위한 국제과학위원회(Comité scientifique international pour l’histoire générale de l’Afrique)>에 참여하여 학제적 연구 차원에서 자신의 명제를 국제적으로 소개하고 확산하고자 하였다. 특히 콩고 출신 언어학자 오벵가(Théophile Obenga)와 함께 고대 이집트어와 근대 아프리카어 사이의 연계성을 밝혀내고, 나아가 이집트문화는 처음부터 아프리카적이었고, 많은 소아시아와의 문화적 접촉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아프리카적인 문화로 남았음을 국제적인 학술회의를 통해 알려가고자 하였다. 1981년 디옴은 마지막 대작이라 할 수 있는 『문명 혹은 야만』을 출간하였는데, 이 책의 주제는 이집트 학문이 그리스와 서양문화에 끼친 영향을 분

17) Leohard Harding, Brigitte Reinwald, op. cit., p.33.

석하는 것이었다. 이 해에 디옴은 다카르 대학의 고대사 분야에 교수직을 얻었다. 1986년 2월 8일 디옴은 영면하였다. 그의 사후에는 다카르 대학은 명칭을 ‘체이크 안타 디옴대학’으로 바꾸었는데, 이는 디옴의 이론과 사상이 세네갈 정신문화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¹⁸⁾

Ⅲ. 디옴의 아프리카역사학 재구성

1. 아프리카문명의 기원

디옴은 아프리카인들은 더 이상 한 개의 민족의식에 의해 인식되는 한 개의 역사적 과거에 뿌리를 두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초기부터 식민 세력들은 민족문화가 한 사람이 스스로 역사과정에 안전하게 자리 잡을 수 있는 가장 견고한 성채라고 생각하였고, 민족문화가 없이는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다른 문화에 동화되거나 종속될 것이라 전제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식민주의적 발상은 그 속임수와 함께 교실에서부터 작업장에 이르기까지 도처에서 아프리카인들을 스스로 소외되도록 만들었다고 디옴은 비판하였다.¹⁹⁾ 서구의 근대성이 역사를 ‘국민국가’ 중심으로 고착시킨 데 대한 비판의식을 디옴은 일찍부터 가졌던 것 같다.

아프리카인은 그간 자신의 조상이 나일강 유역에서의 물질적 조건에 스스로를 적응해왔으며, 인류를 문명의 길로 가장 오래전에 인도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아프리카인은 자신들이 예술, 종교(특히 유일

18) Ibid., pp.34~35.

19) Cheikh Anta Diop, *Towards The African Renaissance. Essays in African Culture & Development 1946-1960*, Egbuna P. Modum, trans., London: Kamak House, 1996, p.50.

신교), 문학, 철학의 초기 체계, 정밀과학(물리학, 수학, 천문학, 달력), 의학, 건축, 농업기술 등을 창조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바로 이 시대에 세계의 나머지 지역, 아시아, 유럽, 그리스, 로마는 아직 무지와 야만상태에 살고 있었다는 것이다.²⁰⁾ 다시 말해 최초의 흑인 문명은 최초의 세계 문명이라는 것이다.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선사시대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인은 심각한 단절 없이 그 역사적 연속성을 이어왔다는 것이다.²¹⁾

디옴이 보기에 아프리카인 스스로의 역사적 사실에 대한 무지 외에도, 식민지 교육은 원주민의 충순성을 높이기 위해 아프리카의 진실된 과거를 은폐하고, 유럽에 비견할 만한 역사와 문화가 없다는 점을 내면화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런 교육의 결과는 아프리카인들에게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지 못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²²⁾

1954년 디옴의 학위논문이 거부되었을 당시, 그가 제시했던 박사논문의 명제는 고대 이집트의 문명은 사하라 이남의 “흑아프리카’(Schwarzafrika)”에서 유래하였기에, 그것의 보편적인 사상, 문화적 표현형태, 언어적인 표출, 사회정치적인 특성들을 하나씩, 하나씩 재발굴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다. 이런 주장은 이후 이집트학 연구자나 역사가 혹은 인류학자들 사이에서 폭넓은 반대에 부딪혔다.

디옴이 이집트기원설을 제기할 1950년대까지 대체로 연구자들은 고대 이집트의 고급문화를, 인구 구성이나 문화적 기원에 대한 관심은 결여한 채, 그저 고도로 발전된 국가체제로 바라보았다. 여기에서 ‘흑아프리카’적

20) Ibid., p.50.

21) Cheikh Anta Diop, *Black Africa: The Economic and Cultural Basis for a Federated State*, Harold J. Selasson, trans., Chicago: Lawrence Hill Books, 1987, pp.3~4.

22) 그래서 디옴은 연구를 통해서 아프리카인이 그 역사의 연속성과 문화적 지속성을 재발견하고 이 문화를 현대적 요구에 적용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서 그 스스로 자신감과 내적 충족감을 되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Cheikh Anta Diop, 1996, p.50; Cheikh Anta Diop, *The African Origin of Civilization. Myth and Reality*, Mercer Cook, trans., Chicago: Lawrence Hill Books, 1974, pp.43~84. (이 책의 불어판은 1955년에 파리에서 출간되었다.)

인 기원은 논외이었다. 고대 이집트인에 대해서는 황인종이거나 지중해인 유형이라는 주장에서부터 코카서스인(Kokasoid) 혹은 유로아프리카 종족이라는 주장이 거론되었지만, 가장 자주 등장한 것은 하무족(Hamiten)이라는 것이었다. 여러 주장들은 어쨌든 이 고급문화를 만든 인간을 결코 흑인으로 상정하지는 않았다.²³⁾ 디오피가 보기에 많은 역사적 기록에도 불구하고, 제국주의적 역사가들은 이집트가 흑인문명임을 왜곡하였다는 것이다.

‘진정한 혁명적인 품격의 언어는 사실과 그것의 변증법적인 관계에 기초한 가시적인 명증성’이라고 주장해온 디오피는²⁴⁾ 치열한 학문적인 증빙을 통해 ‘흑아프리카’인은 이집트 고급문화의 창시자임을 밝히려하였다.²⁵⁾ 첫 번째로 제출한 학위논문에서 그는 상세한 증거자료를 제시하면서, 고대 이집트인은 단일한 흑인종족이고, 동아프리카 해안지역에서 왔으며, 구석기시대 이래 이들은 여러 곳으로의 이주운동을 통해 아프리카 내륙으로 퍼져 갔다는 주장을 하였다. 자신의 명제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인류학적인, 고전적인 그리고 현대적인 증언이나 도상학적인 기록을 디오피는 연구하였다. 뿐만 아니라 그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이집트의 사회정치적 조직형태를 비교하는 것을 통해서, 그 유사성을 밝히고자 하였다.²⁶⁾

또한 디오피는 언어학적인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명제를 입증하려 하였

23) Leohard Harding, Brigitte Reinwald, op. cit., pp.37~38.

24) Cheikh Anta Diop, 1987, Introduction.

25) 예를 들면, 디오피는 그리스 역사의 아버지인 헤로도토스의 언급, 즉 “콜키스인(Colchians)을 흑인이고 곱슬머리를 가졌다”라거나 혹은 리비아나 그리스의 신탁을 받는 사람들의 기원과 관련하여 “이 순결한 사람들은 흑인이라고 말해지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네들을 이집트인이라 생각하게 되었다”는 서술을 들어 이집트인이 흑인임을 주장하는 볼니(Volney)를 준용하여, 자신의 명제를 입증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렇게 헤로도토스가 이집트에서 본 이집트인에 대한 서술을 근대 역사가들은 어리석은 환상이라고 무효화하였다는 것이다. Cheikh Anta Diop, 1996, p.52.

26) Ibid., pp.38~39.

고, 이를 위해 고대 이집트의 문자체계와 서아프리카지역의 언어를 비교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는 밸러프(Valaf)어의 문법과 어휘와 이집트의 것을 비교하여, 라틴어와 프랑스어처럼 그 유사성을 찾아내었다. 그러나 이집트어와 인도 유럽어/셈족의 언어 사이에는 동일한 유사성을 발견해내기 어려웠다고 한다.²⁷⁾

다음에 따르면, 최초의 흑인문명은 유럽에 비해 수십 만 년을 거슬러 올라가는 최초의 세계문명이었으나, 페르시아의 왕 캄비세스(Cambyses) 2세의 이집트 정복으로 거대한 흑인 권력의 거점이 그 독립성을 잃으면서, 기원전 6세기 초부터 아프리카인들은 전 대륙으로 흩어져갔다. 몇 세기 후인, 약 1세기경에야 최초의 대륙문명이 서쪽과 남쪽 아프리카에서 세워졌다. 가나, 노크-이페(Nok-Ifé), 짐바베 등이 이에 해당하였다. 방사성 탄소 측정의 도움으로 기원 후 1세기 아프리카 동부 해안에서 발견된 로마의 동전으로부터 활발한 해상무역을 유추할 수 있었다. 노크(Nok)문명으로 지칭되기도 하는 최초의 나이지리아 문명은 여기에서 발견된 도자기의 방사성탄소측정을 통해 기원전 900-기원후 200년 사이의 유물임이 확인되고 있다고 다음은 주장하였다. 확실히 기원후 8세기에 이미 가나제국이 존재하였고, 이 세력은 서아프리카 전역을 걸쳐 대서양까지 그 세력을 확산하였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집트-수단에서 고대시대가 끝난 후에 이어진 중세시대에도 아프리카 국가는 명백하게 실존하였다는 것이다. 동아프리카의 왕국은 포르투갈에 정복될 때까지 해안가의 무역도시와 함께 고전고대 말기에서부터 15, 16세기까지 번영하였다. 이 왕국들은 인도, 시암, 그리고 중국과의 원거리 무역을 통해서 화려한 물품들을 소비하였고, 돌로 지은 주택들은 5, 6층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나일강 유역의 수단은 그 독립성을 단지 19세기에 상실하였으나, 에티오피아의 동쪽 지역은 1936년 이탈리아의 정복까지 그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국가들의

27) Ibid.

해체와 분산은 19세기 유럽인들의 정복에 의해서 급격하게 진행되었다. 이런 결과로 오늘날 단지 짧게 기술되고 있는 아프리카 역사나 역사개념은 서구 학자들의 의도와 목적에 따라 수용되고 각색되었다고 디옴은 평가하였다. 그러나 디옴이 보기에 흑인 아프리카 문화의 선례가 없다면, 고대 이집트의 문명도 가능하지 않았다.²⁸⁾

디옴은 고대에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2천 년 간의 ‘흑아프리카’의 역사, 즉 동부, 남부 그리고 중앙 아프리카의 모든 감추어진 역사의 발굴과 재활성화를 촉구하였다. 남아 있는 이집트, 그리스, 로마, 페르시아, 중국 그리고 아랍의 역사기록들을 뒤지고, 나아가 고고학적 연구도 여기에 보태어야 한다. 물론 이런 연구는 이집트인-수단인(Egyptian-Sudanese)의 고대의 활동에서부터 단절 없이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아프리카인의 진화가 큰 틀에서 알려지겠지만, 이를 보완하면서도 존재하는 작은 틈새를 메우는 연구도 계속되어야 한다. 더 이상 암흑 속의 아프리카가 아니라 선사시대에서부터 오늘로 서서히 이어지는 진화과정을 보여주어야 한다. 디옴이 보기에 역사적인 공동성(Historical Unity)은 점차 명백해지고 있었다.²⁹⁾

이후 디옴의 연구는 반복적으로 날카로운 비판에, 주로 유럽 학자들의 비판에 직면하였지만, 사실 그의 테제는 한 번도 인류학자들에 의해 깊이 있는 학술적인 논쟁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고고학자들도 거의 예외 없이 디옴의 테제에 대해 논쟁을 시도하지 않았으니, 이는 디옴의 주장에 대한 철저한 무시였다.

사실 이집트의 기원에 대한 연구에는 여러 난관이 도사리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중간기(intermediären Perioden)에 대한 자료의 부재이다. 중앙 권력이 약화되었던 시기인데, 대략 1000 년간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런 시간적인 공백기는 공간적인 낙차로 이어지기도 한다. 약 기원전 4000년

28) Cheikh Anta Diop, 1987, pp.3~5.

29) Ibid., p.6.

경에는 상에집트나 저누비아의 경우 고고학적으로 좋은 자료들이 있지만, 나일 델타의 경우 왕조 이전 시기나 의사왕조 시대에 대해서는 어떤 유물이나 유적도 발견할 수 없고, 그래서 이집트인들이 아시아로부터 영향을 받았는지 혹은 지중해문화에 의해 특정될지 여부에 관해 어떤 증빙될 만한 명제도 내세우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19세기 후반기에 식민지적인 침투나 유럽에 의한 아프리카 정복이 시작되면서, 유럽인들은 스스로의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아프리카를 ‘역사 없는 대륙’으로 규정하였다. 이렇게 이념적으로 날조된 특성은 학문적인 영역으로도 밀려 들어왔다. 그 결과 아프리카에는 기록을 통한 전승은 부재한 것으로 여겨졌고, 구술적인 전통도 “아프리카 도서관”에 자리 잡을 수 없었다. 학자들은 이집트를, 그 지리적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대륙으로부터 분리하여, 초기 문자문화를 흑인이 아니라 아프리카 바깥에 있는 어떤 종족의 작품으로 주장하였다. 그 결과로 학자들은, 예를 들면, 이집트 상형문자의 발전에 메소포타미아가 끼친 근원적인 영향을 강조하고, 이를 보편적으로 통용시켰다.³⁰⁾

그러나 1974년 카이로에서 열린 국제회의에서 베르쿠터(Jean Vercoutter)는 이집트는 의심의 여지가 없이 팔레스티나와 메소포타미아지역과의 접촉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사시대의 시작부터 역사시대까지 순수한 아프리카 문화로 남았다는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한 참석자들의 전체적인 동의가 있었다. 이런 합의는 여기에서 더 진전된 질문, 즉 식민지적으로 각인된 사고방식에 안주하지 않고, 이집트인의 인종적 구성을 연구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하였다. 디오피의 주장에 가까워지고 있었다.³¹⁾

앞에서 언급한 디오피의 선구적인 작업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들도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도 그가 주장한 고이집트인들의 문화 단일성 테제는 인류학적인 연구들을 통해서 반박되고 있다. 인구구성의

30) Leohard Harding, Brigitte Reinwald, op. cit., p.41.

31) Ibid., pp.41~42.

다양성과 관련하여, 베르쿠터는 이집트인중 약 30% 정도가 흑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다. 다시 말해서 이는 다음의 주장이 제기한 통찰력을 높이 평가하지만, 그의 연구가 인구구성이나 문화의 혼종성을 좀 더 받아 들여야 한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다. 또 달리는 인종(Rasse)이라는 범주가 지닌 폐쇄성을 고려할 때, 연구과정에서 다음이 사용한 인종의 개념을 문화라는 보다 확장된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요구도 제시되었다.³²⁾

그러나 다음의 역사관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비판은 그가 내세우는 이집트 흑인기원설과 이를 서구문명의 기원으로 보는 견해가 ‘기술적으로 무능한 아프리카대륙은 의식을 지닌 존재인 인류가 가지는 보편적 미래에 속할 수 없다’는 헤겔의 주장에 대한 정 반대의 주장으로 비치지만, 또 달리는 다음의 주장이 일종의 아프리카 중심주의일 수 있고, 그런 점에서 헤겔의 논리방식, 즉 서구의 논리를 수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이다. 또한 다음은 과거의 영광을 재현해야 한다는 당위성에 고착되어 식민지 이전의 역사연구에 치중하였고, 그 결과로 오늘날 까지도 아프리카인의 운명을 좌우하고 있는 식민지의 역사는 그의 역사연구 내에서 설 자리가 없었다는 것이다.³³⁾

32) Ibid., p.42; Ibrahima Thioub, op. cit., p.202. 다음의 학문적 작업이 지니는 의미에 대한 각성 속에서 다카르 학파의 연구 내에서도 두 개의 경향성이 나타났다. 그 하나는 이집트를 아프리카 민족의 역사를 연구하는 출발점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이는 나일강 계곡문명의 업적과 특성을 세네감비아(Senegambia)의 물질적, 정신적 문화, 정치제도, 사회와 비교하는 작업이다. 이는 파라오의 물질적 그리고 정신적 문화와의 혈통적 연계성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로, 주로 세네감비아에 있는 인종집단에 대한 연구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비이집트인들 그리고 이들의 역사적 이행과정이나 경험을 ‘비이동성 담론(immobility discourse)’에 의해 도외시하거나 소략하게 다루고 있다. 이런 담론은 역사적 역동성의 본질적인 부분을 제거해버릴 위험을 안고 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경향성은 고지대 계곡에서 출원한 이집트를 오랜 진화의 과정의 종착점으로 상정하는 것이다. 이런 연구는 파라오가 지배하는 이집트가 나일지역과 아프리카의 단 하나 뿐인 문화조류의 가장 오래된 조상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것이야말로 선사시대에 나타난 인류 최초의 위대한 문화적 성취로 내세우고 있다. 바로 이런 연구는 다음의 이론들에서 출원하여 보다 심도 깊은 연구로 가는 단계에 있는 듯하다. Ibid., pp.201~202.

다음에 비해 아프리카의 존경 받는 지도자의 한 사람인 탄자니아 대통령 니에레는 역사서술과 관련하여 보다 절제된 합리적인 안목을 보여준다. 그는 언론과의 대담에서 ‘아프리카 역사가들에게 아프리카 역사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과장하지 말 것’을 주문하였는데, 이는 외국의 반대편 역사가들이 아프리카의 역사적 사실을 폄하하거나 독립 이전 시기에 대한 서술에서 아프리카를 배제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니에레에게 공신력 있는 아프리카 역사의 생산에서 ‘공평함’은 대단히 중요한 미덕이기 때문이었다.³⁴⁾

2. 유럽에 끼친 이집트문명의 영향

다음은 이집트인이 흑인이고, 여기에서 아프리카문명이 연속적으로 이어졌다는 주장 외에도, 근대 역사가들, 특히 일부 이집트학 연구자들이 제국주의적 착취를 정당화하기 위해 흑인 이집트가 전 세계를 문명화한 역사적 사실을 은폐하려 하였음을 주장하였다. 이미 헤로도토스와 같은 고전고대의 학자들이 이집트 여행 후에 밝힌 사실, 즉 이집트인은 흑인이고 이집트가 지중해 지역의 모든 사람들에게 문명의 빛을 전해준 고전문명의 원류에 해당하는 지역이었다는 점이 서구 학자들에 의해 간과되었다는 것이다.³⁵⁾

다음은 그의 저서 여러 곳에서 집중적으로 이집트의 사상과 과학기술

33) B. Jewsiewicki and V.Y. Mudimbe, “African’s Memories and Contemporary History of Africa”, *History and Theory* Vol. 32, No. 4, 1993, pp.1~3, 9; 그 외에도 Olufemi Taiwo, “Exorcising Hegel’s Ghost: Africa’s Challenge to Philosophy”, *African Studies Quarterly* Vol. 1, Issue 4, 1988, pp.3~16와 Babacar Camara, “The Falsity of Hegel’s Theses on Africa”, *Journal of Black Studies*, Vol. 36 No.1, 2005, pp.82~96 참조.

34) Donald Denoon and Adam Kuper, “Nationalist Historians in Search of a Nation: The ‘New Historiography’ in Dar Es Salamm”, *African Affairs* Vol. 69. No. 277, 1970, pp.347~348.

35) Cheikh Anta Diop, 1996, pp.50~51.

이 유럽문화, 특히 고대 그리스 문화에 끼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런 명제에서 출발하여 그는 이집트가 ‘흑아프리카’ 문화권이었으며, 나아가 서양의 과학, 철학 그리고 종교의 본질적인 부분은 ‘흑아프리카’적인 뿌리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책 『문명 혹은 야만』의 4부, 자연과학과 철학 영역에 대한 아프리카의 기여 부분에서 다음이 내세운 이런 주장들은 자연과학이나 수학부분에서는 그 정당성을 의심하지 않았다. 예를 들면 365일, 12개월, 30일로 구성된 이집트 달력은 그레고리 달력을 거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에 이르렀다. 혹은 의학에서 해부학이나 외과 의학 등에서 이집트인의 기술은 중요하였고, 이는 이후 히포크라테스에 의해 받아 들여졌다. 혹은 기하학이나 측량술에서도 피라미드 건축술과 더불어 발전한 이집트의 기술적 영향은 부인할 수 없다.³⁶⁾

그러나 그리스 철학의 이집트 기원에 대한 다음의 주장은 서구 철학계의 기본 흐름과는 잘 부합하지 않는 듯하다. 다음은 기원 전 2600년부터 이집트의 우주론에 들어 있는 여러 생각이 일시적으로 이집트에 거주한 그리스 철학자에 의해 받아 들여졌고, 이를 그리스인은 그 고유의 철학사상으로 내세웠다는 것이다. 우주론의 네 가지 기본요소, 공기, 물, 땅, 불은 초기 그리스철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앞의 요소들을 다음은 이집트의 선행 모델에서 기인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집트의 공기(Schu), 습기(Tefnut), 땅(Geb), 빛(Nut)이 바로 그것이다.³⁷⁾

또한 다음은 유럽철학의 중요한 요소인 변증법 역시도 고대 이집트의 우주론에 이미 내재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네 쌍의 신들은 서로 자연의 상반되는 원칙을 대변하는 것이다: 암흑(Keku)과 빛(Kekujt), 물질(Nun)과 무(Naunet), 영원성(Heh)과 비영원성(Hehet), 가시적인 것(Amun)과 비가시적인 것(Amaunet)이 그것이다. 이런 논리의 연장선상에서 다음은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유일신적인 종교들의 일부 요소도 그 기원을 이집

36) Leohard Harding, Brigitte Reinwald, op. cit., p.113.

37) Ibid., p.115.

트에 두고 있다고 주장하였다.³⁸⁾

철학이나 종교 분야에서 유럽에 끼친 이집트의 영향에 대한 디오피의 주장은 그리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하였고, 그에 대한 토론도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오히려 독일어권 철학이나 역사서술은 오리엔트문화에 나타나는 세계관은, 여기에는 이집트문화도 해당하는데, 여전히 신화적인 성격을 지닌 것으로 간주하였다.³⁹⁾

1980년대 말에 이르러 디오피의 주장과 관련하여 나타난 고무적인 현상은 버넬이 출간한 『블랙 아테나』가 그리스문명, 나아가 서구문명의 기원에 대한 새로운 논쟁을 불러일으킨 점이다. 특히 이 책이 세계 학문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에서 출간되었다는 점, 그리고 미국 학계가 지니는 지적 해계모니에 힘입어 그리스 문명 창시자의 흑인적 기원에 대한 논란을 서구 역사학계에서 불러일으킨 점은 주목할 만하다. 버넬은 그의 책에서 그리스문명을 본질적으로 유럽인 혹은 아리안과 연결 짓는 아리안 모델에 맞서, 이집트와 셈족 문화의 주변부에서 그리스의 기원을 찾는 수정고대모델을 더 선호하였다. 특히 아리안 모델이 이집트인의 그리스 정착 뿐 아니라 페니키아인의 정착까지도 의문시하는 점을 날카롭게 비판하였다. 그는 아리안모델이 후기 그리스어가 포함하는 많은 비인도유럽어적인 요소를 설명하지 못한다고 비판한다. 버넬은 서양문명의 근원적인 기초를 재성찰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런 맥락에서 그간 서구인이 행한 ‘모든 역사 연구와 역사 철학이 인종주의와 유럽쇼비니즘로 채색된 점을 인정’할 것을 촉구하였다.⁴⁰⁾ 이렇게 뒤늦게 나타난 새로운 논쟁을 접하면

38) Ibid.; Cheikh Anta Diop, *Precolonial Black Africa*, Harold Salemsen, trans., Chicago: Lawrence Hill Books, 1987, pp.31~33.

39) Leohard Harding, Brigitte Reinwald, op. cit., pp.114~115.

40) 마틴 버넬, 오홍식 역, 『블랙아테나. 서양고전문명의 아프리카·아시아적 뿌리. 제1권 날조된 고대 그리스, 1785-1985』, 소나무, 2006, 34~35쪽. 그 외에도 오홍식, 「고대 그리스와 동지중해권-마틴 버넬의 블랙 아테나 II: 고고학적 증거와 문헌증거」, 『서양사론』 109호, 2011. 6, 289~318쪽과 오홍식, 「유럽중심주의의 극복과 사료로서의 그리스 신화」, 『서양사론』 95호, 2007, 113~144쪽 참조. 또

서, 우리는 디오펜이라는 한 지식인이 지닌 선구적인 통찰에 감탄하게 된다.

IV. ‘흑아프리카’적 문화공동성

‘흑아프리카’적 문화공동성(L’ Unité culturelle de l’ Afrique Noire) 개념⁴¹⁾은 디오펜의 역사이해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아프리카 문화는 산재한 여러 지역의 개별적 경험의 집산이 아니라, ‘흑아프리카’가 초기 역사시대 이집트에서 최초로 시작한 모든 경험의 총체성, 공통성 그리고 독자성을 의미하였다. 문화공동성이 디오펜에게 그렇게 중요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이 문화적 복합체의 실제 구멍이 ‘흑아프리카’ 민족들이 공유하는 문화 현실, 즉 그들을 다른 민족과 구분하는 특성을 최대한 살려 내는 데에 기여하기 때문일 것이다.

디오펜에게 ‘흑아프리카’의 지리적 통합성은 명백해 보이고, 이는 필연적으로 경제적 통일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전식민지시대의 아프리카 가족과 국가의 구조, 이에 뒤이은 철학적, 도덕적 관점 등에서 일관된 문화적 공동성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디오펜은 문화공동성의 주요한 토대로 언어를 지적하였다. 그래서 그의 작업의 기초를이룬 것은 언어학 연구이었고, 여기에서 자신의 주장과 명제의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그가 보기에 아프리카 언어는 하나의 언어 가계를 이루었으나,⁴²⁾ 19세기 식민지화와 함께 아프리카의 공용어는 ‘식민지 모국들’의 다양한 언어로 교체되었다. 이에 디오펜은

한 『블랙 아테나』에 대한 비판적인 평가로는 Chris Gray, op. cit., p.56 참조.

41) 이 글에서는 L’ Unité culturelle를 문화권이나 문화단일성으로 번역하기 보다는 ‘문화공동성’으로 번역하였다. 이런 한글 용어가 디오펜의 취지에 가장 근접하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앞에서는 맥락에 따라 단일성, 통일성을 혼용하여 사용하였다.

42) Cheikh Anta Diop, 1987, pp.6~7.

세네갈이 언어통일 정책이후 친족의 통합성이 강화된 사례를 들면서, 국가위원회를 만들어 인위적인 언어정책을 시행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다시 말해 이는 아프리카 공용어를 선정하고, 이를 전 대륙의 행정적, 문화적 언어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먼저 새로운 공용어를 각 지역에서 제1외국어 필수과정으로 만든 후에, 이를 서서히 단일 공용어로 바꾸어갈 것을 주창하였다. 우선 언어를 통해서 아프리카는 외래문화로의 동화에 저항하는 방안을 다음은 생각하였다.⁴³⁾

공동의 유산에 대한 발견은 그에게 있어서, 아프리카 대륙에서 일어나야 할 민족 해방의 기본적인 전제조건이었다. 문화공동성의 발견은 아프리카 민족들의 독립투쟁을 사상적인 차원에서만 지원하는 것에 머무는 것만은 아니었다. 이는 학문적인 영역에서 군림하고 있는 유럽중심주의에 맞서는 투쟁이었다. 다음은 사회과학에서 통용되는 주장, 아프리카는 다양한 인종, 언어 그리고 문화의 다채로운 혼합이라는 주장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이에 비해 촘촘한 친족(kinship)관계의 네트워크와 문화공동성의 존재를 내세웠다.⁴⁴⁾

다음은 크게 보아 네그리튀드 운동의 연장선상에 있지만, 그가 내세우는 문화공동성과 쟁고르의 아프리카적 문화운동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존재한다. 다음은 쟁고르와의 불화를 거론하는 과정에서 사회과학자와 시인 사이에는 철학에서 근원적인 차이가 있음을 언급한다. 다음은 ‘한 사람의 문화적 개성은 세 가지 상호 연관된 요소, 즉 심적(psychic) 요소, 언어적 요소, 역사적 요소로 구성되는데, 뒤에 네그리튀드로 알려진 작품들

43) Ibid., pp.9~12. 다음이 판단하기에 언어의 영향력은 너무 커서, 식민지 ‘모국’들은 그들의 경제나 문화영역과 마찬가지로 언어가 그대로 잔존하는 하는 한에 있어서, 아프리카로부터의 철수가 그리 큰 손실을 가져오지 않을 것이라 보았다는 것이다. 이전의 아프리카 식민지가 사회주의 진영으로 넘어가지 않는 한, 프랑스는 고도의 자유주의 정책을 통해서 그들을 교묘하게 동화시킬 수 있었다. Ibid., pp.13, 15, 31.

44) Leohard Harding, Brigitte Reinwald, op. cit., p.163; Cheikh Anta Diop, 1996, pp.129~136.

쓴 시인들은 심적인 요소를 강조하였다. 이에 비해 자신은 객관적인 현상들, 즉 언어적인 것이나 역사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보다 과학적으로 문화 정체성의 문제에 접근하면서, 흑인이나 흑인사회의 문화적 명예회복을 시도한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생고르는 지속적으로 그의 반대자에 맞서는 과정에서, 특히 마르크스-레닌주의자들에 맞서, 이들이 내세우는 ‘정치 우선성’ 입장을 강하게 비판하였다. 아프리카의 통합을 방해하는 것은 정치에 대한 지나친 강조이고, 이는 결국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스스로의 힘으로, 스스로를 위해 사그하는 것을 거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그러나 생고르가 끌어내는 네그리튀드운동이 아프리카인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착취에 대한 비판적 목소리를 결여하는 한, 이는 디오펜에게 신식민주의 정치를 추인하는 것에 다름 아닌 것으로 비쳤을 것이다.⁴⁵⁾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흑아프리카’의 문화공동성에 대한 디오펜의 명제가 지닌 중요한 전제는, 이미 다른 곳에서 대단히 논쟁적이었던 이론, 즉 초기시대 이집트를 ‘흑아프리카’의 범주에 넣는 것이다. 여기에서 아프리카민족들의 요람이자 문화유산 발전의 가장 중요한 공간으로서, 이집트와 나일계곡은 아프리카문화권의 정체성에 결정적인 요소가 되었다.

그러나 ‘흑아프리카’의 문화공동성에 대한 증거 제시는 디오펜의 연구작업을 논쟁 속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유럽 학계에서는 대다수가 디오펜의 주장을 무시하였으나, 프랑스어 사용 아프리카인들은 이 연구를 열광적으로 칭송하였다. 이에 비해 영어권 사용 아프리카인들은 디오펜의 방법론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퍼부었다.⁴⁶⁾ 이런 현상은 디오펜의 저술들이 프랑스어로 출간되고, 그가 파리에 체류하면서 얻은 여러 인적 네트워크가 중요한 역할을 한 데에서 기인하였을 것이다. 동시에 이런 차이는 영국 식민지에 비해 프랑스 식민지에서 정치적, 경제적 역압이 더 혹독하였기 때문일 것

45) 생고르도 물론 범아프리카주의를 지지하였으나, 이는 니에레레나 은쿠르마(Nkurumah)와 유사한 신념을 가진 디오펜에게는 보다 온건한 관점으로 보였을 것이다. Chris Gray, op. cit., pp.38~39.

46) Leohard Harding, Brigitte Reinwald, op. cit., p.164; Chris Gray, op. cit., pp.53~78.

이라는 해석도 있다.

디옴은 세계를 세 문화권으로 나누었다. 인도유럽과 아리아 권역으로 대변되는 북부 요람, 인도·아랍·서아시아·비잔틴·메소포타미아로 이루어지는 통합문화권, 그리고 이집트와 아프리카로 대변되는 남부 요람이다. 흥미 있게도 디옴은 자신의 연구의 부제를 ‘고전고대 시대의 가부장제 권역과 모권제 권역’으로 붙이는 것을 통해서 자신의 핵심명제를 제시하였다. 디옴은 북부와 남부 권역은 특히 모권제에 대한 입장에서 차이를 드러내었다고 판단하였다. 그는 사회구조, 특히 가족구조에서 하나의 보편적인 발전과정을 상정하고, 모권제를 하나의 중간단계로 파악하고, 중국에는 가부장제로 정리될 것으로 바라본 바호펜, 모간, 앵겔스를 비판하였다. 이들과는 달리 디옴은 처음부터 두 개의 문명 발전의 요람, 하나는 모권제가 우세한 남부와 가부장제가 지배하는 북부가 있었다는 것이다. 중국적으로 디옴은 북부와 남부 요람 사이의 차이가 가족제도만이 아니라, 나아가 국가철학, 종교 그리고 문학에서도 명확히 드러난다고 보고 있다.⁴⁷⁾

그러나 디옴이 주장한 북부와 남부 사이의 명료한 차이라는 것이 역사 발전 과정에서 하나의 정체된 모습으로 남아 있는 것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문화의 발전과정에서는 내적인 변화도 있을 수 있거나 혹은 모권제에서 부권제로 이행하는 여러 역사적 단계들도 나타날 수 있는데, 디옴의 주장은 이런 다양한 역사적 진행과정을 구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을 받기도 한다. 혹은 디옴의 세계문화권에 대한 분류에서는 사실상 동아시아의 존재는 사라지고 말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47) Ibid., pp.167~168; Cheikh Anta Diop, 1996, pp.129~130.

V. 정치구상

‘흑아프리카’ 모든 민족의 공동 유산의 재구성, 다시 말해 문화공동성의 확보는 역사가로서의 디옴이 지닌 핵심적인 문제의식이었다. 정치가로서의 디옴은 이러한 공동의 과거에 대한 학술적인 입증을 통해서 정치적 그리고 경제적으로 하나가 된, 독립아프리카를 위한 기초를 만들려 하였다.⁴⁸⁾ 아프리카국가연합을 연방국가의 형태로 만드는 것은 디옴에게 있어서, 아프리카 발전을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이자 실질적인 독립을 위한 유일한 가능성이었다. 이런 전제를 현실로 전환하기 위해서, 그는 1940, 1950년대의 역사적인 맥락을 염두에 두었다. 이차대전 이후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반식민지운동의 확산 속에서 디옴은 어떤 결정적인 계기를 포착하려 하였다. 즉 디옴은 민족국가적인 자치의 요구를 전 아프리카를 망라하는 정치적 틀로 묶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그의 범아프리카주의(Pan-africanism) 사상은 당시 유엔을 중심으로 진행된 ‘흑인 의식화 운동(Black Consciousness Movement)’과 교호하였는데, 이런 사상적 흐름은 당시 아프리카의 정치적 전위세력의 강령에도 등장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탄자니아의 니에레레(Julius Nyerere)의 아프리카 사회주의나 1960년에 가나 대통령이 되는 은쿠르마(Kwame Nkrumah)의 범아프리카주의가 탄생하였다.⁴⁹⁾

48) 이런 맥락에서 디옴은 단일정부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유럽이 (사실상) 하나의 기독교 국가로 단일성을 가진 것처럼, 사우디아라비아나 터키, 그리고 이란도 단일정부로 갈 수도 있다는 것이다. 종교적 차이도 하나의 왜곡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디옴의 논리는 이집트를 겨냥하였다. 이집트를 위시한 북아프리카 국가들이 ‘흑아프리카’와의 차이보다는 민주적인 중앙정부를 갖춘 연방체제의 일원이 될 것을 요청하였다. 이런 논리 속에는 오늘날에도 극복되지 않고 있는 북아프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혹은 범아프리카주의와 범아랍주의의 분할을 둘러싼 딜레마에 대한 디옴의 희망과 요구가 들어 있다. Cheikh Anta Diop, 1996, pp.62~63. 그 외에도 윤상욱,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던 만들어진 아프리카를 넘어서』, 시공사, 2014, 22~25쪽 참조.

디옴은 아프리카 연방국가의 창건을 위해 아래와 같은 경제적, 기술적 기초의 구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잠재적 에너지원의 확보, ‘흑아프리카’의 산업화 전략, 앞의 계획을 위한 재정보호 그리고 기술 지도력의 양성이다. 그는 공용어정책이나 세네갈처럼 이미 안착된 국민국가 정치의 재구조화도 강조하였다. 특히 디옴은 이차대전 이후 제국주의 국가들의 전략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프리카의 남미화(South-Americanization)를 염려하였다. 그는 시몬 볼리바르가 남미대륙을 하나의 블록으로 통합하는 것에 실패한 역사적 경험을 환기하면서,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아프리카 대륙에서 이런 불행한 현실이 재생산될 것을 염려하였다. 특히 국가적 지도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군부독재의 가능성이 높고, 이 과정에서 정치적 이기주의가 아프리카를 파멸시킬 수 있음을 염려하였다.⁵⁰⁾ 그가 볼 때에 연방국가로 가기 위해서는 기존의 구미 선진국과의 동맹관계를 종식하고, 아프리카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을 구축해야 하였다.⁵¹⁾

여기에서 쟁고르와 디옴의 정치적 지향성에서 현저한 차이가 드러난다. 1940년대와 1950년대 사이 초기 유럽공동체 구상에서 잠시 떠오른 ‘유라프리카 연방 결성’이 쟁점으로 대두되었을 때, 쟁고르는 유럽과 아프리카연방체의 동등한 통합을 구상하는 유라프리카 연방결성을 적극 제안하였다. 쟁고르는 영국, 프랑스, 벨기에가 그들의 해외영토와 각각 연방을 구성한 후에, 이 개개의 연방을 통합하는 단계적인 유라프리카 연방을 구상하였다. 이는 유럽이 경제적인 난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아프리카의 거대한 잠재력을 적극 활용해야 하고, 특히 풍부한 자연자원의 제공을 통해서 아프리카는 호혜적인 역할로 유럽의 구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

49) Leohard Harding, Brigitte Reinwald, op. cit., pp.252~253.

50) Carlos Moore, “Interviews with Cheikh Anta Diop”, Ivan Van Sertiman, Larry Obadele Williams, eds., *Great African Thinkers: Cheikh Anta Diop*,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2000, pp.249~250.

51) Cheikh Anta Diop, *Les fondament économique et culturels d'un Etat fédéral d'Afrique Noire*, Paris: Présence Africaine, 1974, pp.30~33.

다. 이는 인종 평등의 기반위에서 아프리카의 존엄성이 인정받는 그런 과정이 되어야 하였다. 이러한 쟁고르의 인식 속에는 사회주의, 즉 마르크스와 테아르 드 샤르댕(Teilhard de Chardin)으로부터 받은 사상적 영향이 들어 있다. 쟁고르는 마르크스로부터 아프리카 사회주의의 경로를 모색하기도 하였지만, 보다 결정적으로는 샤르댕의 보편문명 사상에서 더 큰 자극을 받았던 것 같다. 그 결과 쟁고르 사상에서는 네그리튀드, 문화의 혼혈, 세계보편문명이 중요한 개념어로 등장하였다.⁵²⁾

이에 비해 디옴은 처음부터 제국주의와의 투쟁을 명료하게 표방하였다. 그는 자본주의적 착취가 아프리카에서 일어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인데, 이는 식민주의의 총체적인 절멸 없이는 해소될 수 없다고 보았다.⁵³⁾ 아프리카가 산업화하고, 이를 통해 노동계급이 안정적으로 형성되고 저항운동의 기초가 구축될 수 있지만, 디옴이 보기에 노동력의 집중은 제국주의 지배 아래에서는 불가능하였다.⁵⁴⁾ 그에게 있어서 궁극적인 목표는 전체 아프리카 대륙에서 민족독립이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래야만 비로소 법적, 정치적 권리의 보장이나 지역정부에의 민주적인 참여가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었다.⁵⁵⁾

그러나 디옴이 희구하는 아프리카 민족의 해방에 도달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제는 모든 아프리카인에게 ‘흑아프리카’에 대한 의식화작업을 하는

52) 쟁고르는 마르크스 사회주의에서 부르주아의 지배와 이에 대한 프롤레타리아트의 투쟁에서 식민지배자에 맞선 흑인의 소외와 투쟁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그는 마르크스에서 벗어나 흑인의 영성이 풍만한 대지에서 공동체의 전통을 발전시킬 수 있는 아프리카 사회주의의 길을 모색하면서, 이 과정에서 하느님, 상이한 문화들 간의 평등성과 대화, 주고 받는 만남으로 이어지는 드 샤르댕의 우주론으로 기울게 된다. 이복남, 앞의 논문, 189, 191, 194~198쪽.

53) Cheikh Anta Diop, 1996, p.48.

54) Ibid., p.58. 디옴은 ‘흑아프리카’를 파괴할 수 있는 네 가지의 적으로 신음하고 있는 자본가 유럽, 아프리카의 민족주의 토양에서 성장하는 파시즘(이는 주로 남아연방을 지칭하는 듯하다), 1.4억 흑인의 질곡을 상징하는 미국 사형장의 전기의자 그리고 아랍 봉건주의를 지적하였다. Ibid., p.65.

55) Ibid., p.49.

것이고, 이를 방해하는 사회적, 심리적 요소를 우선적으로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그간 식민지교육은 흑인들에게 자신감을 결여하게 하고, 스스로의 능력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이런 과정에서, 이미 앞에서 언급한 대로, 제국주의자들은 ‘이집트가 전 세계를 문명화하였고, 이 이집트인들은 흑인이었다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왜곡하였다’는 것이다.⁵⁶⁾

또한 아프리카의 모든 사람들은 종족적인 경계에 의해 분할되어 있고, 디오피가 생각하기에, 이는 너무 경직되어 있다. 마찬가지로 아프리카 사회에는 카스트에 따른 사회적 분할도 존재하는데, 이는 시급히 요구되는 공동체 정서의 형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아프리카인의 근대적 의식 획득에 있어서, 적절한 대중 교육이 필요하고, 이는 당연히 아프리카 언어로 진행되어야 한다. 학교 이외의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적절한 교육수단은 대중의 즉각적인 물질적 욕구와 연계되어야 하고, 이 과정에서 그간 자행된 착취의 메카니즘을 보다 극적으로 제시해야 하였다.⁵⁷⁾

그렇다면 진보적인 국가들로부터도 지리적으로 고립된 아프리카인은 어떻게 스스로의 생존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를 위해서 디오피는 먼저 아프리카인은 자신들의 구원은 스스로에게 달려 있다는 것을 각성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 다음에는 투쟁의식을 기르고, 스스로를 조직화하거나 훈련해야 한다. 여러 형태의 민족해방을 위한 투쟁에서 아프리카민주연합(Rassemblement Démocratique Africain)이나 그 학생들이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였다. 아프리카인의 의식화는 결코 투쟁과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또한 흥미 있는 점은 이런 투쟁과정에서 아프리카인은 과거의 식민지 ‘모국’에서도 민주적 통치가 승리하도록 하는 투쟁에도 동참해야 한다는 점을 디오피가 지적한 것이다. 이렇게 제국주의 국가내의 민주세력과 연대를 그가 강조한 점도 높이 살만하다.⁵⁸⁾

56) Ibid., pp.49~53.

57) Ibid., pp.54~59.

58) Ibid., pp.65~66.

정치형태와 관련하여서, 다음은 먼저 종족중심주의(tribalism)의 극복을 주장하였다. 식민지 이전시대에는 전통적인 종족사회도 있었지만, 거대 영토국가가 등장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정치형태가 군주제적 단계로의 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식민화와 노예무역은 아프리카를 다시 분절화하거나 종족화하였다.⁵⁹⁾ 동시에 식민지 지배는 제국주의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영토를 자의적으로 나누거나 혹은 이를 국민국가 단위로 묶었다. 그 결과로 포스트식민사회에서도 국민국가를 향한 열망이 계속 강렬하였고, 이를 통해 영토갈등이 지속적으로 재생산되고 있다는 것이다.⁶⁰⁾ 거기에다가 여러 아프리카 국가에서 국가권력의 독점을 특정 종족의 엘리트가 장악하는 구조를 띄는데, 이는 다음에게 대단히 위협한 진행경로로 비쳤다. 이에 대한 해결방식으로 다음은 종족학 연구의 역동적인 활용과 지속적으로 과학적이면서도 솔직한 설명을 통해서 아프리카의 공동성을 찾아갈 것을 강조하였다. 엄중한 과학적 조사의 결론은 새로운 유형의 민족의식을 형성하는 것을 도와야 하는데, 달리 말하면 종족학 연구는 아프리카인의 모든 종족공동체에게 자신들이 공유하는 친족관계의 본질과 비전을 보여 주어야 하는 것이다.⁶¹⁾

그러나 다음은 아프리카가 당면한 문제들은 매우 복잡적이기 때문에, 이기적인 집단이익의 추구는 매우 위험하다고 보았다. 연방제라는 복안을 통한 아프리카 공동체의 전망 없이는, 현재 국경선의 조정이 필연적으로 심각한 갈등으로 치달을 것임을 경고하였다. 연방제 형태만이 이전의 식

59) 물론 이 분절화 과정에서 나타난 지배자들에 의해 기원신화 뿐 아니라 전통이 날조되고 창조되었다. A. Adams, op. cit., pp.80~82.

60) Carlos Moore, op. cit., pp.271, 275.

61) Ibid., pp.272~273. 여기에서 다음은 포스트식민사회에서 등장하는 민족주의적 정체성을 매우 우려하였다. 특히 아프리카의 성취를 강조하기 위해, 새로운 아프리카 국가의 지배층이나 기생적인 부르주아 관료층이 만들어내는 협의의 민족주의에 맞서, 다음과 오벵가는 범아프리카주의를 주장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에 의한 새로운 역사지식의 생산에 대해서도 경계심을 표명하였다. Gray, op. cit., p.55.

민지 국경선을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 것이라 보았다. 다음은 행정적 경계 짓기는 연방제 내에서라면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고, 그 안에서 각각의 종족 집단에게 그들 고유의 문화적 토대에 기초한 내적인 자율성(autonomy)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오늘날과 같은 다국적 정치구조 속에서는 아프리카공동체는 엄격한 중앙집권제에 기초한 일괴암적인(monolithic) 공동체로 가서는 아니 되지만, 그렇다고 자결권의 원칙이 무정부상태를 초래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다.⁶²⁾ 이런 맥락에서 연방 내에서 각 국가의 정치적인 지도력은 순번제로 발휘되어야 하고, 국가주권의 상당 부분은 연방국가의 집행단위에 일임해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국방과 군사력도 아프리카 대륙 전체의 차원에서 행사되어야 한다고 보았다.⁶³⁾

다음에 연방제를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아프리카는 경제 통합을 통해서만 열악한 경제현실을 극복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정치적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 이런 연방제 안에서 아프리카 경제는 대륙적인 토대위에서 합리화과정을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이다.⁶⁴⁾ 특히 다음은 합리적인 경제발전을 위한 에너지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는데, 광물자원 개발을 위한 에너지원과 전기에너지 시장의 통합 그리고 효과적인 에너지 배분을 위해서는 연방국가의 필요성이 절실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⁶⁵⁾

아프리카가 당면하고 있는 신식민주의 체제의 위협과 관련하여 다음은 아프리카연방은 어느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비동맹 체제로 남을 것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위치 짓기를 통해서야 비로소 아프리카는 자기중심적 발전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⁶⁶⁾ 이런 점에서 그에게 EU는 아프리카가 지

62) Ibid., pp.273~275.

63) Ibid., pp.252~253.

64) Ibid., pp.250~252.

65) Cheikh Anta Diop, 1996, pp.Xi~XV.

66) Ibid., p.XV. 이런 맥락에서 다음은 아프리카와 아랍의 협력을 위한 기초로 양자 사이의 생물학적 문화적 관련성을 강조하였다. 이런 혈연적 관련성은 기원 전 5만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갈 뿐 아니라, 4세기 썬족의 출현과도 관련된다는

향해야 할 중요한 전범이었다.⁶⁷⁾

그러나 이런 디옵의 사상을 현실로 옮기는 데에는 많은 장애물이 놓여 있었다. 과거의 식민지 모국을 다시 복원하고 과거의 영향권을 유지하려는 시도들이나 이전의 식민지들이 제국주의 지배자들이 그어놓은 경계선을 따라 자신들의 국민국가를 건립하려는 노력 속에서 하나의 아프리카 공동체를 구성하는 것은 실현할 수 없는 꿈으로 남아 있었다.

VI. 끝맺는 말

체이크 안타 디옵의 역사연구가 지닌 첫 번째 목표는 이집트와 흑인 사이의 역사적, 문화적 관련성을 구명하는 것을 통해서 당대 아프리카인의 의식 속에 역사의식과 자긍심을 심어 주는 것이었다. 두 번째 목표는 아프리카 대륙과 흑인종을 보편적인 세계사 속에 자리 잡게 하는 것이었다. 이는 아프리카 역사학을 정당한 학문분야로 인정받으려는 투쟁이기도 하였다. 그간 아프리카 역사는 식민지인들에 의해 만들어진 역사였고, 주로 영국이나 프랑스 역사가들이 내놓은 생산품이었다. 그래서 디옵의 노력은 더 이상 아프리카인이 타자가 해석하고 가르치는 아프리카 역사를 배울 수 없다는 거부의 몸짓이기도 하였다.⁶⁸⁾

디옵은 잃어버린 공동체를 재생하는 아프리카 역사, 근대의 주류 학자들에 의해서도 수용되는 담론으로서의 아프리카 역사를 창안하고자 하였다. 디옵은 그의 학술작업에서 많은 연구 진전의 가능성을 보았고, 자신의 이론이 전문가에 의해 평가받기를 원하였다. 또한 디옵은 연구의 질적 고양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⁶⁹⁾ 그러나 서구학자들에 대한

것이다. Ibid., p.XVII.

67) Ibid., pp.262~263.

68) Chris Gray, pp.52~53, 60.

그의 실망감은 컸던 것 같다. 디옵의 전문성 결여에 대한 서구학자들의 비판이 있었고, 그의 글이 결론에 도달하는 과정에서 보이는 급격한 비약 지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도 있었다. 그러나 달리는 ‘지금 강단 역사가에 의해 사용되는 지적 개념이나 전문성의 기준 자체도 역사학의 발전과정을 통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그 자체가 기존 권력이나 계급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과 함께, 디옵를 변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그럴지라도 그는 오랫동안 학문적 국외자로 남았다. 그의 고향인 세네갈에서조차도. 디옵의 주된 청중은 프랑스어를 사용하는 흑인들이었다.⁷⁰⁾ 다행스럽게도 1960년대 말 미국에서 활발해진 민권운동을 통해서, 디옵의 이론은 미국의 흑인 학자들 사이에서도 알려지기 시작하면서, 그에 대한 연구를 진작하였다. 이때 이후로 디옵의 이론은 아프리카 대륙보다는 미국에서 더 알려지게 되었다.⁷¹⁾ 그러나 여전히 그의 사상이나 문제제기는 서구 역사학 주류에 의해서는 무시되었다.

이런 서구학자들의 편견은 디옵이나 오벵가가 내세웠던 전제, 즉 ‘좋은 역사는 아프리카 역사공동체의 이상을 알리는 것을 통해 아프리카 정치가들을 보다 높은 소명으로 견인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 때문 일 것이다. 이런 언급은 그의 역사연구가 현실정치의 필요성에 따라 구성된 비전문적인 접근으로 간주되었을 것이고, 자연스레 그 학문의 중립성을 의심하였을 것이다. 디옵은 서구 역사가들에게 자신의 정치적인 목표를 배제하고 자신의 사상을 그 자체의 덕목만으로 보아줄 것을 요청하였으나, 서구 학자들에게 여전히 디옵의 연구 성과는 너무 거시적인 명제로 이루어진, 그래서 증빙할 수 없는 역사서술로 비쳤던 것 같다. 혹은 역사학에서 디옵이 과학의 외양을 띤 상부구조나 나쁜 신앙을 몰아내어야 한

69) Ibid., p.57.

70) Ibid., pp.57, 66~67. 혹은 디옵의 범아프리카주의적 민족주의도 결국 유럽적인 지식의 도구나 수단을 사용하면서 유럽적인 구조의 틀 속에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도 있었다. Ibid., p.57.

71) Ibid., pp.53, 55, 71, 73.

다는 열정적인 주장도 서구 역사가들을 불편하게 하였을 것이다.⁷²⁾

아프리카 역사연구에서 발생하는 자료적 한계나 이론적 논쟁의 결핍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다음의 역사학 연구와 정치 참여가 지니는 의미를 우리는 결코 과소평가할 수 없다. 그는 아프리카 역사에 대한 이해를 크게 넓혔고, 포스트식민주의 시대의 서구 학자들 사이에서 아프리카인의 관점에서 아프리카 역사를 서술할 것을 제기하면서, 많은 공감대를 이끌어내었다. 포스트식민주의 역사이론에 다음이 끼친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문명이 흑인에 의해 주도되었고, 그것이 그리스문명의 기원을 형성하였다는 주장은 『블랙아테나』에 의해 그 정당성을 높이게 되었다. 근래에 독일 연방정치교육원이 발행한 『아프리카사』 개설서에서 다음의 주장이 소개되고 있는 것도 그의 가설이 역사학계 내에서 시민권을 획득해가는 증좌이다.⁷³⁾ 또한 유네스코에서 출간한 아프리카 개설서에서도 아프리카인의 역사적 주도성을 지적하고 있어서, 다음의 시도는 여기 저기에서 그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⁷⁴⁾

앞으로의 과제는 다음이 던져준 문제제기를 실증적인 연구를 통해 구명하고, 이를 통해서 다음이 목표하였던 ‘아프리카역사 새로 쓰기’를 진척시키는 일이다. 그간 전문역사가들에 의해 서술된 아프리카사 연구가 주로 노예무역이나 대서양지역의 역사적 발전에 치중한 한계를 넘어서, 보다 본격적인 연구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아프리카 역사를 대외관계나 대외무역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아프리카 전체대륙의 내적 발전과의 연관 속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글로벌 역사가 대양과 대륙을 횡단하는 역사 뿐 아니라, 그것이 대륙 내부의 역사적 발전과 역

72) Ibid., pp.54, 59, 62.

73) 디직은 그의 개설서에서 “심지어 다음은 모든 이집트인이 원래 남쪽에서 왔고, 초기에 이들은 모두 흑인이었다는 테제를 내세우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최후의 흑인 파라오의 안면 조각상을 보여주고 있다. Lutz van Dijk, *Die Geschichte Afrikas*,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05, pp.48~49.

74) B. Jewsiewicki and V.Y. Mudimbe, op. cit., pp.9~10.

동적으로 결합하였던 과정을 분석해야 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노예무역이 아프리카 내부사회에 끼친 영향력 그리고 국제적인 무역관계가 지역경제와 상호작용하는 과정도 함께 연구해야 할 것이다.⁷⁵⁾ 또한 최근에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 연구에서도 아프리카 역사가들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비판적인 입장에서 제국 역사(Imperial History) 쓰기’를 추구해온 일련의 역사가들이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로의 전환을 모색하면서, 이들은 제국주의 지배와 이주의 경험을 지닌 아프리카역사가야말로 가장 트랜스내셔널하고, 이런 점에서 아프리카역사가들이 앞서서 그 성과를 보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아프리카역사가들의 학문적인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⁷⁶⁾

위에서 언급한 과제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역사 연구 내에서 아프리카 역사 연구를 도외시하는 역사가의 태도가 초래하는 연구의 제약성에 대한 반성이 필요하다. 또한 아프리카 대학들이 여전히 재정적 난관 속에 있고 아프리카 학자들은 그들의 연구 성과를 국제 학술지에 출간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에 국제 학계는 주목하면서, 그들을 지원하려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 이런 학문적 현실이 시정되지 않는 한, 아프리카 역사학의 주변화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75) Maxine Berg, *Writing the History of the Global.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pp.200~201.

76) 그러나 이런 주장을 해온 세바스찬 콘라드(Sebastian Conrad)와 같은 독일 역사가는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가 과거의 식민주의적 이분법 담론을 사실상 재생산할 위험이 있음을 지적한다. 그래서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는 반드시 다면적인 역사서술과 결합하여야함을 지적한다. 마찬가지로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는 상호적이어야 하는데, 예를 들면 식민지 지식과 경험이 유럽문화 형성에 끼친 영향도 함께 구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drew Zimmer, “JAH Forum: Africa in Imperial and Transnational History: Multi-sited Historiography and the Necessity of Theory”, *Journal of African History* 54, 2013, pp.331, 333, 340.

• 참고문헌

권윤경, 「탈식민화시대에서 전지구화 시대로-에메 세제르의 『식민주의에 대한 담론』과 포스트식민주의조건들」, 『서양사론』 제127호, 2015, 199~226쪽.

김상훈, 『외우지 않고 통으로 이해하는 통아프리카사』, 다산 예듀, 2010.

김준환, 「네그리튀드와 민족주의: 쟁고르와 쎬제르」, 『비평과 이론』 9권, 2호, 2004, 5~35쪽.

마틴 버널, 오홍식 역, 『블랙아테나. 서양고전문명의 아프리카·아시아적 뿌리. 제1권 날조된 고대 그리스, 1785-1985』, 소나무, 2006.

오홍식, 「고대 그리스와 동지중해권-마틴 버널의 블랙 아테나 II: 고고학적 증거와 문헌증거」, 『서양사론』 109호, 2011. 6, 289~318쪽.

오홍식, 「유럽중심주의의 극복과 사료로서의 그리스 신화」, 『서양사론』 95호, 2007, 113~144쪽.

윤상욱,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가 없다. 우리가 알고 있던 만들어진 아프리카를 넘어서』, 시공사, 2014.

이복남, 「L. S. 쟁고르의 네그리튀드와 보편문명 개념-마르크스와 테야르 드 샤르댕을 중심으로」, 『비교문화』 55권, 2011, 213~230쪽.

이복남, 「유럽통합 초기단계에 나타난 L.S. 쟁고르의 유라프리카공동체 구상」, 『EU연구』 31권, 2012, 189~210쪽.

Berg, Maxine, *Writing the History of the Global. Challenges for the 21st Century*,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13.

Camara, Babacar, “The Falsity of Hegel’s Theses on Africa”, *Journal of Black Studies*, Vol. 36 No.1, 2005, pp.82~96.

Denoon, Donald and Kuper, Adam, “Nationalist Historians in Search of a Nation: The ‘New Historiography’ in Dar Es Salamm”, *African Affairs*,

- Vol. 69 No. 277, 1970, pp.329~349.
- Dijk, Lutz van, *Die Geschichte Afrikas*, Bonn: Bundeszentrale für Politische Bildung, 2005.
- Diop, Cheikh Anta, *Black Africa: The Economic and Cultural Basis for a Federated State*, Harold J. Salesson, trans., Chicago: Lawrence Hill Books, 1987.
- Diop, Cheikh Anta, *Les fondament économique et culturels d'un Etat fédéral d'Afrique Noire*, Paris: Présence Africaine, 1974.
- Diop, Cheikh Anta, *The African Origin of Civilization. Myth and Reality*, Mercer Cook, trans., Chicago: Laurence Hill Books, 1974.
- Diop, Cheikh Anta, *Towards The African Renaissance. Essays in African Culture & Development 1946-1960*, Egbuna P. Modum, trans., London: Kamak House, 1996.
- Gray, Chris, *Conception of History in The Works of Cheikh Anta Diop and Theophile Obenga*, London: Karnak House, 1989.
- Harding, Leohard, Reinwald, Brigitte, eds., *Afrika-Mutter und Modell der europäischen Zivilisation? Die Rehabilitierung des schwarzen Kontinents durch Cheikh Anta Diop*, Berlin: Reimer, 1990.
- Jewsiewicki, B., and Mudimbe, V.Y., "African's Memories and Contemporary History of Africa", *History and Theory* Vol. 32, No. 4, 1993, pp.1~11.
- Jones, A., "Kolonialherrschaft und Geschichtsbewusstsein", *Historische Zeitschrift*, Bd. 250, 1990, pp.73~92.
- Moore, Carlos, "Interviews with Cheikh Anta Diop", Ivan Van Sertiman, Larry Obadele Williams, eds., *Great African Thinkers: Cheikh Anta Diop*, New Brunswick: Rutgers University, 2000.
- Taiwo, Olufemi, "Exorcising Hegel's Ghost: Africa's Challenge to Philosophy", *African Studies Quarterly* Vol. 1 Issue 4, 1988, pp.3~16.

Thiouh, Ibrahima, “Writing National and Transnational History in Africa: The Example of the ‘Dakar School’”, Stefan Berfer, ed., *Writing the Nation: A Global Perspective*, London: Palgrave, 2007, pp.197~212.

Zimmer, Andrew, “JAH Forum: Africa in Imperial and Transnational History: Multi-sited Historiography and the Necessity of Theory”, *Journal of African History* 54, 2013, pp.331~340.

Re-Historicization of Colonial Historical Writings

— A Study on Diop's View of African History —

Chung, Hyun-Back*

Cheikh Anta Diop is a historian who first attempted to establish new writings of African history and view of history, in Africa, beginning with criticism for the existing African historiography that was written from a Europe-centered perspective. Diop was a maverick historian, to such an extent as to get a professorship from the University of Dakar, even after twenty years since he came back from study in Paris, but his influence is immense in Africa, to the extent that the University of Dakar, a national university in Senegal, was named the University of Cheikh Anta Diop, since his death. This paper analyzed Diop's historical writings and thoughts, who attempted to re-write African history.

First, Diop argued that Egyptian civilization originated from Sub-Saharan 'Black Africa', and this initial black civilization was the first world civilization. Since then, Egyptian ideology and scientific technology had an influence upon European culture, ancient Greek culture in particular. Second, Diop stood against the western historical descriptions that there was just diversified and split tribal culture in Africa where huge power did not exist, claiming cultural unity of Black Africa and trying to excavate and recompose its contents. Third, Diop participated in political activities, and argued an

* Sungkyunkwan University

establishment of African Federation based on pan-Africanism. While opposing an imperialistic threat, he stressed unity beyond national interest or political frame, for Africa to reach absolute industrialization.

Absolutely there is a critical view against Diop's claim. Some criticized that Diop's historical descriptions and view of history are also another 'Afrocentrism', and others pointed that Diop disregarded Cultural Hybridity, or many Diop's writings revealed unverified logical leap. In spite of such criticism, it is undeniable that Diop's new attempt became an epoch-making motive for 're-making history' or composing new historical identity of Africa.

The western historians hardly accepted Diop's historical descriptions and view of history, or had no interest in it. But, Diop's thoughts attracted newly some African intellectuals who studied in France, and African-American intellectuals since the Student Movement of 1968. Recently, as a debate on global history has flourished, and Martin Bernal's *Black Athena* is stirring up interest, Diop's historical descriptions newly receive attention.

Key words: Cheikh Anta Diop, re-historicization, colonial historical writings, African historiography, Black Africa

필자 E-Mail: hyunback@skku.edu

투고일: 2016년 4월 14일 / 심사완료일: 2016년 4월 28일 / 게재확정일: 2016년 5월 3일